1905년 노가쿠 조선 공연기

- 시게야마 추자부로 요시토요의 기록을 중심으로 -

김난주*

〈차 례〉

1. 시작하며
2. 교겐시 추자부로의 눈에 비친 1905년의 조선
3. 1905년 노가쿠 공연의 정황
4. 1905년 조선 노가쿠 공연의 의미
5.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근대 能樂史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해외 식민지 공연사 중에서도 특히 1905년 경부철도개통기념 공연과 관련하여 이제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시게야마 추자부로 요시토요(茂山忠三郎良豊)의 여행기를 소개하고, 여기에 나타난 1905년 조선의 모습과 노가쿠 첫 조선 공연의 성격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여행기는 1905년 5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의 14박 15일의 여정을 29쪽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다. 여행기의 대부분은 처음 밟은 조선 땅에 대한 이국적 풍물과 여행 중에 생긴 에피소드를 기록하

*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원

는데 할애되고 있다. 특히 부산 용두산 일대와 자갈치시장, 초량역, 경성의 종각과 종로 일대, 덕수궁→대한문→영국대사관→세종로→광화문→인수궁→파고다공원을 돌아보고 기록한 내용에는 1905년 당시 부산과 경성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 우리의 근대사를 복원하는 데에도 참고할 만하다.

경부철도 개통식에서 선보인 노가쿠는 한일 정재계의 주요 인사들과 천여 명의 관객 앞에서 치러진 노가쿠 최초의 해외 공연이었다. 또한 필자 추자부로 요시토요를 비롯하여 狂言師 시게야마 센고로(茂山千五郎), 간제의 家元 기요카도(清廉), 오니시 료타로(大西亮太郎), 오에 마타사부로(大江又三郎) 등은 당대를 대표하는 명배우들이었다. 그러나 요시토요의 여행기에는 정작 공연 자체에 대한 기록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은 그가 연기자로서 이때의 공연에 별 감흥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이때의 노가쿠 무대는 경부철도 개통이라는 정치적, 제국주의적 사건에 갑작스럽게 동원된 하나의 이벤트였으며 국가 간의 문화전파 내지는 교류의 의미를 담지 못했다.

그러나 1905년의 이 공연을 계기로 일본의 전통예능 노가쿠는 아시아 식민지라는 새로운 시장의 존재를 발견하였고 이후 일본의 본격적인 아시아 침탈과 함께 노가쿠의 해외 식민지 진출도 본격화 되었다. 이런 점에서도 1905년 이들의 조선 공연은 일본 노가쿠사의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노가쿠(能樂), 교겐(狂言), 시게야마 추자부로 요시토요(茂山忠三郎良豊), 近代 能樂史, 해외 노가쿠 공연, 경부철도개통식, 근대 경성, 근대 부산

1. 시작하며

메이지유신(1868년)이 촉발한 도쿠가와 정권의 몰락은 500년 역사 동안 지배층의 비호 속에 성장해 온 노·교겐(能·狂言)에도 엄청난 시련과 도전을 강요했다. 도쿠가와(德川) 정권 성립 이래 막부의 御用 예능이라는 안정된 기반과 원조를 상실한 노가쿠계(能樂界)의 연기자들은 졸지에 생활의 기반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처지가 된 것이다. 천지가 뒤바뀐 세상에서 연기자들은 오로지 자신의 실력과 처세로 생활의 방편을 세우고 또한 가문의 예능을 보존해야 했다. 이 시기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많은 연기자들이 가업을 버리고 농부로, 상인으로, 공무원으로, 종업원으로 생계를 찾아 떠났으며, 생계의 방편도 새로운 무대도 찾지 못한 名家의 후손들은 대대로 물려온 裝束이며 假面, 도구와 傳書들을 내다팔아 연명하고 빈곤 속에 폐인이 되어 갔다. 막부의 비호 속에 군림해 오던 각 宗家의 권위는 무의미해졌고 난세를 견디지 못한 宗家들은 줄줄이 맥이 끊겼다. 노가쿠 대성 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은 의외로 빠르게 기사회생의 전기를 붙잡았다.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1825-1883)를 위시한 메이지정부의 관료들은 서양의 오페라에 필적할 근대 일본의 국민문화 창도를 부르짖으며 노가쿠 부흥 정책에 힘을 쏟았다. 또한 신 국가에서도 華族이라는 이름으로 집권계층을 형성한 舊 다이묘(大名)와 舊 公卿들, 그리고 세이칸인노미야(靜寬院宮. 1846-1877)와 에이쇼황태후(英照皇太后. 1835-1897)를 위시한 황실가 역시 자신들의 오래된 취미 문화 활동에 대해 여전히 강한 애착을 보였다. 이렇게 메이지 노가쿠계는 막부로부터 절대 권력을 이양 받은 황실과 구 다이묘, 구 공경 등의 화족들을 부흥의 발판으로 삼고 여기에 신흥기업가들과 정부 관료계층을 새로운 애호가 층으로 끌어들이며 재생

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와쿠라 도모미의 주창에 화답하여 화족, 신흥 기업가들의 후원으로 근대식 노가쿠 전용극장인 노가쿠도(能樂堂)가 1881년 설립되었고 노가쿠 연기자들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노가쿠샤(能樂社. 1881년 설립)[1] 같은 단체들이 생겨났다. 시류의 변화를 민첩하게 감지해 든든한 후원자 획득에 성공한 연기자들과 존폐의 위기에도 가문의 예능을 포기하지 않고 기량을 연마해 온 노가쿠의 예능인들은 이 시기를 새로운 도약의 시기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 시기 노가쿠 상연은 自國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근대 일본의 '국민예술'로 호출된 노가쿠는 적극적인 해외공연을 펼치며 바야흐로 '아시아의 문화예술'로 뻗어 나가고 있었다. 물론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일본의 아시아 침탈이었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의 전면적이고도 직접적인 식민 지배를 경험한 만주와 조선의 경우 노가쿠 애호가 조직이 대거 결성되어 활발한 동호회 활동을 전개했다. 오현열은 노가쿠전문지『호쇼(宝生)』1928년 12월호에 한국 能會 소속 회원 5백 십 수 명의 명단과 주소를 수록한 기사를 소개하며, 이 때 한국에 거주한 노가쿠 애호가 수가 일본 본토 5개縣의 노가쿠 인구수와 맞먹는 숫자라고 추정했다.[2] 이러한 열기는 자연스럽게 內地 연기자들의 해외 공연, 즉 식민지 공연으로 이어졌다.

노가쿠의 첫 해외 공연은 1905년 조선에서 이루어진다. 당시 조선의 철도 부설권을 독점한 일본 경부철도주식회사의 초청으로 경부철도 개통 축하 공연을 위해 24명의 노가쿠 공연단이 조선에 입국한 것이다. 1905년의 경부철도 개통식 축하연의 노가쿠 공연에

---

1) 이 단체의 설립과 함께 종래의 노(能), 교겐(狂言)은 노가쿠(能樂)라는 새로운 명칭을 얻게 된다.

2) 오현열,「韓國当地能樂享受の諸相、稿 - 在韓國謠曲家名盤 -」,『法政大學大學院紀要』43号, 1999. p. 304.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그 존재가 알려진 바 있고[3], 특히 서정완의 연구[4]에서 면밀하게 이루어져 그 전모와 추진 배경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공연에 참가한 교겐시(狂言師) 시게야마 추자부로 요시토요(茂山忠三郎良豊)의 여행기를 중심으로 교겐시 추자부로의 눈에 비친 1905년의 조선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또한 일제의 식민 치하나 다름없던 조선과 전통의 노가쿠가 어떻게 조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본 자료는 본지를 통해 처음 소개되는 것으로 필자가 교토에 있는 시게야마 추자부로가에 직접 방문하여 입수한 자료이다. 이제까지 이 분야 연구가 주로 신문과 잡지 기사에 의존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관련자 본인의 가식 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본 공연의 진면모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 교겐시 추자부로의 눈에 비친 1905년의 조선

1) 能樂史 최초의 해외 공연단 출정

2세 시게야마 추자부로 요시토요(1848-1928)는 關西 교겐계의 명배우로 꼽혔던 1세 시게야마 추자부로(1813-1887)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젊은 시절 한때 피혁상에서 일하기도 하고 또 40대에는

---

3) 池內信嘉,『能樂盛衰記』, 東京創元社, 1926. ; 오현열,「韓國当地能樂享受の諸相、稿 - 在韓國謠曲家名盤 -」, 앞의 논문, pp. 304-303. ; 飯塚惠里人,「明治末年の韓國における能樂公演：明治四三年「國諷」能樂公演を中心に」,『翰林日本學』13집, 2008, pp. 8-10.

4) 徐禎完,「植民地朝鮮における能—京釜鐵道開通式典における「國家芸能」能」,『植民地朝鮮と帝國日本—民族、都市、文化』, 勉誠出版, 1910, pp. 141-151.

도쿄에서 무대에 설 기회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등 메이지 격변기를 헤쳐온 인물이다. 40대 후반부터는 본거지인 교토에 정착하여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져 나갔다고 하는데[5], 그가 처음 조선 땅을 밟은 1905년은 그의 나이 57세로, 이미 關西 교겐계의 최고 배우이자 동시대를 대표하는 명배우의 반열에 올라 있었다.

한편, 요시토요는 역대 추자부로 가문의 배우들에 비해 비교적 많은 기록물을 남겼는데 여기에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 1861년 1세 추자부로가 48세의 나이, 요시토요 13세 되던 해에 실명한 탓에 어린 시절부터 집안의 古文書 관리와 노가쿠 상연 관련 기록을 맡아 왔던 것이다. 본고에서 1905년 일본 能樂師들의 來韓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접할 수 있는 것 역시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그의 기록 습관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6]

여행기는 1905년 5월 18일 새벽 6시 교토의 자택을 나선 순간부터 6월 1일 오전 귀가하기까지의 14박 15일의 여정을 29쪽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다[7]. 지면 사정상 본고에서는 날짜별로 중요한 일정 내지 특이한 사항을 필자 나름대로 발췌하고 요약하여 싣기로 한다.

1905년 5월 18일

새벽 6시 교토의 자택을 출발, 畑伝次郎를 만나 약속 장소인 교토

---

5) 이상 요시토요의 이력에 대해서는 小林責, 『狂言史研究』, わんや書店, 1974, pp. 126-127 참조.

6) 참고로 和田克司는 에도막부 말기와 메이지 초기 요시토요가 기록해 놓은 상연 기록(날짜, 장소, 곡목, 출연 배우 등을 기록) 및 1882년 오사카 能樂師 회합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維新期の能樂 - 茂山忠三郎良豊記を中心に-」(『芸能史研究』 22, 1968. 7.)를 발표한 바 있다.

7) 여행기를 기록한 종이는 가로 15.5, 세로 24센티 가량의 얇은 미농지가 쓰였고 초서체 붓글씨로 써 내려갔는데, 면수 총 29쪽, 한 면당 12 ,3행의 글로 채워져 있으며 조선 풍물과 에피소드에 관한 그림 몇 장이 삽입되어 있다.

의 시치조(七條) 정류장 대합실로 향했다. … 이번에 교토에서 출발할 일행은 片山九郎右衛門, 大江又三郎, 田中耕吉, 谷田民之介, 林吉藏, 古寺隼之助, 多田香疇, 茂山千五郎, 畑伝次郎, 忠三郎가 있고, 여기에 배웅을 나온 사람들 중에는 片山의 부인을 비롯하여 … 그밖에 어느어느 觀世流의 대표들이 나왔고 아이노마치(間之町[8])에서는 … 등등 가와라마치(河原町)까지 많은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다. … 9시 13분 교토 출발, 고베 산노미야(三ノ宮) 역 하차. 神港俱樂部에 도착하여 ■■ 공헌 韓國初年會 保護 慈善 寄附 공연을 열었다. 공연이 끝난 후 정원에서 일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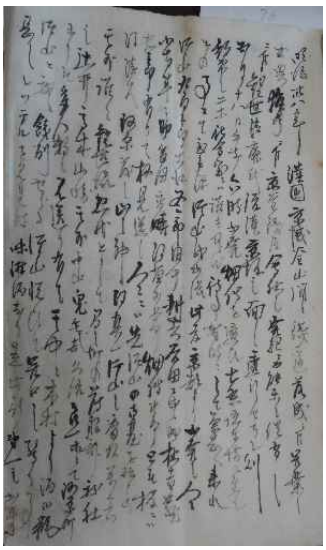


사진 1) 여행기의 첫장



사진 2) 추자부로가 그린 지게와 가옥 그림

기록에는 일행이 가는 길 곳곳에서 가족과 동료 연기자들이 나와 배웅을 하고 또 배웅 선물로 받은 술병을 들고 기뻐하는 모습

8) 교토 시내에 남북으로 나 있는 거리.

이 그려진다. 일행의 출발은 제법 떠들썩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묘사되는데 노가쿠사에 처음 있는 해외 공연에 대한 노가쿠계의 기대와 관심, 그리고 흥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조선 공연에 앞서 산노미야에서 자선공연을 벌였는데 특기할 것은 이 때 러일전쟁을 테마로 한 《스케토키(資時)》라는 新作能[9]가 상연되었다는 점이다. 공연장소인 神港倶樂部는 1896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활동사진(시네 스코프)이 일반에 공개된 곳으로도 유명하다. 공연을 끝낸 일행은 고베에서 일박을 하고 다음날 19일 산노미야를 출발, 부관 연락선이 있는 시모노세키로 향한다.

5월 19일

오전 10시 산노미야 역 출발. 韓國 공연 일행 도쿄에서 온 觀世淸廉, 幸淸次郎, 山科康、津田三藏、中井誠太郎, 關岡兼▣▣, 小笠原敬信과, 片山九郎三郎, 大江又三郎, 田中耕吉, 谷田民之介, 林吉藏, 古寺隼之助, 多田佐一郎, 茂山忠三郎, 茂山千五郎, 畑伝次郎, 大西亮太郎、森田操, 奥村松之助、大倉喜太郎, 平松甚平、橋本熊三郎、本富治三右衛門. 이상 23명[10]의 공연단 산노미야 역을 출발. 기차 안에서는 달리 기록할 만한 일이 없었다.

5월 20일

오전 7시 시모노세키(下ノ關) 도착. 시모노세키 슌판로(春帆樓) 2층에 짐을 풀다. 그런데 바로 이곳 春帆樓가 27, 8년 강화조약을 맺었던 곳이라고 한다. 10년 후 조선국에 노가쿠를 공연하러 바다를 건너는 일행이 이 누각을 오르다니, 당시의 이야기를 나누며 남쪽을 바라보니 규슈의 산들이 손에 잡힐 듯했다. 오후 4시 한국으로 향하는 義州丸에 승선. 한국행 승객들이 많아 1, 2등실이 만선인 관계로 3등실로 쫓겨

9) 新作能 작품 목록 및 내용은 西野春雄氏「新作能の百年(1)－1904年～2004年－」,『能樂研究』29, 2005. 05. 31, p. 5 참조.

10) 24명의 誤記.

나니 마치 러시아 포로 같은 신세. 하지만 대우는 2등실에 준해 정중했다.

인솔 대표자 간제 기요카도(觀世淸廉)를 필두로 한 24명은 20일 시모노세키에 도착한다. 시모노세키에서 조선행 여객선을 기다리며 추자부로 일행이 잠시 여독을 푼 곳은 슌판로(春帆樓)라는 여관이었다. 공교롭게 이곳은 메이지 28년(1895년) 청일강화조약을 맺었던 곳이다. 이른바 시모노세키조약으로 잘 알려진 이 조약을 통해 일본은 청나라 세력을 조선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조선 지배권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여행기 문맥을 보면 1905년 러일전쟁의 와중에 조선국에 노가쿠를 공연하러 바다를 건너려는 추자부로 요시토요의 마음속에 자신들이 역사의 한 현장에 서 있다는 남다른 감회가 서려 있음을 엿볼 수 있다.

2) 추자부로의 눈에 비친 조선

5월 18일 교토의 자택을 출발한 추자부로는 21일 오전 드디어 부산에 상륙한다. 일행이 짐을 푼 곳은 부산 이리에마치(入江町)의 石井旅館이라는 곳이었다. 1876년 강화도조약의 체결로 부산포항이 일본에 개방되면서, 조선시대부터 한일 무역 창구역할을 했던 용두산 일대의 초량 왜관 지역이 日本專管居留地로 조성되었다. 추자부로 일행이 머문 이리에마치(入江町)는 지금의 광복동 일대로 그들이 머물던 石井旅館은 부산내 일본전관거류지에 위치한, 일본인이 경영하는 여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월 21일

오전 부산항 입항. 이리에마치(入江町)의 石井旅館에 투숙. 석정여관은 여관치고는 규모가 크고 일본 상인들이 묵는 곳이다. 이리에마치는

> 번화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조선인은 어쩌다가 눈에 띄는 정도였다. 부두에는 짐꾼들이 나무로 만든 짐 싣는 도구로 손님들의 짐을 져 나르고 손님은 뒤에서 좇고 있는데, 牛馬를 부리는 것보다 더 혹독했다. … 개중에는 품삯이 적다고 주눅 든 소리로 사정을 해 보지만 욕을 하며 쫓아 버리고 … 亡國之民이라는 말을 쓸 수 밖에. 森田, 橋本 등과 함께 어시장을 둘러보았다. 생선은 일본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는데 도미, 가자미, 장어, 그밖에 잡어들이 모두 모양도 훌륭하고 맛도 일본 것과 같았다. 도로변에 남녀 물건을 파는 장사치들이 있었다. 더럽고 냄새나는 나무 주발에 밥을 가득 담고 또 빨갛고 걸쭉한 국물을 부어 파는 옆에 쭈그리고 앉아 손으로 집어먹는 모양새는 꼭 內地의 거지 모습이다. 일행과 시내 한가운데 있는 교토의 후나오카산(船岡山) 만한 작은 산에 올랐다. 이 산에 심겨진 소나무는 그 옛날 쓰시마의 종주가 심었다고 전하는데 산상에 있는 신사[11]의 도리이(鳥居)와 石燈은 文政[12]과 嘉永[13] 연간에 지어졌고 나머지는 메이지 때 만들어진 것이라 한다. 여관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고 다시 산책을 나갔다 왔다. … 여관에 돌아와 저녁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밤 11시 쯤 대장 淸廉가 돌아온다는 소리에 잠을 깨니 片山, 大西들과 함께 2, 3명의 접대 여성의 배웅을 받으며 기분 좋게 들어온다. 모두 일어나 보라고 소란을 피우며 깨우고 다니는 통에 모두 일어나 한바탕 술판이 벌어졌다. 森田 녀석이 춤을 추었다. 새벽 1시쯤 잠자리에 들었다.

부산에 조성된 일본인 거류지는 일본 측이 경찰권, 징세권, 지방행정권 등을 장악한 치외법권 지역으로 실제로 일본땅이나 다름없었다. 전관거류지 개항 당시에 일본인 인구 80여 명에 불과하던 것이 러일전쟁을 거치며 일본인 인구가 급격하게 유입되면서 1905년은 13,364명으로 불어나 있었다.[14] 시게야마 추자부로가 느낀 대

---

11) 용두산신사.
12) 1818년-1830년.
13) 1848년-1854년.
14) 김의환, 『부산근대도시형성사연구』, 연문, 1973, p. 36.

로 이곳은 조선에 있지만 거의 완벽한 일본이었다.

추자부로 일행이 구경한 어시장은 인근의 자갈치시장을, 산과 그 산 위에 있는 신사는 근방에 있는 용두산과 용두산신사였을 것이다. 일본 본토에서 전해진 유적들을 일일이 짚어 가며 타국에서 고국의 흔적을 찾는 것에 감회를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어시장의 갖가지 싱싱한 생선들을 보고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선인 짐꾼들의 비참한 모습과 시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끼니를 때우는 조선인들의 고단한 모습을 응시하고 있다. 1905년 5월 러일전쟁의 향방이 아직 가늠되지 않은 이 시점에 추자부로가 조선 인민들을 '亡國之民'으로 표현하고 있는 대목도 인상적이다.

긴 여로 끝에 무사히 조선 땅에 상륙한 일행은 간제류(觀世流) 주도로 흥겨운 술자리를 벌이며 이국땅에서의 첫날밤을 보내고, 다음 날 여행의 최종 목적지인 경성길에 오른다.

5월 22일

오전 6시 반, 石井여관 출발. 철도회사에서 준비한 점심을 먹었다. 초량 정류장에 도착하니 사람들로 대혼잡을 이루었다. … 경부철 안은 일본 기차보다 폭도 넓고 천정도 높아 승차감이 좋았다. 좌우로 보이는 산들은 거의 모두 민둥산이었다. … <경부선 노선표 부착> 위 역을 통과하고 산과 강을 지났다. … 밤 10시 경 경성 남대문역에 도착했다. 마중 나온 觀世家 제자들의 안내로 경성 會洞 壹岐組 家屋에 도착. 宿舍는 漢人[15] 大官의 저택인 듯 보였는데 큰 가옥이었다. 내부 구조는 內地의 사원과 비슷한데 천정과 사방 벽은 두껍고 화려한 唐紙로 도배되어 있고 바닥은 종이를 발랐는데 그 아래 연통을 놓아 아침저녁 밥을 지을 때마다 그 온기가 안으로 전해지도록 해 놓았다. 한기가 금방 따뜻해 질 터이다. 식사를 마치고 집안 구경을 한 후 일동 잠자리에 들었다.

---

15) 추자부로는 당시 제한제국의 국호를 韓國, 漢國, 우리국민을 漢人등으로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다.

1905년에 완공된 경부철도의 출발역은 초량역이었다. 지금의 부산역 자리에 위치했던 이 역은 1905년 1월에 개통되어 1965년 폐역이 될 때까지 수많은 인파와 화물을 실어 날랐다. 추자부로의 여행기에는 인파로 혼잡한 초량역에서 일행이 짐을 싣기 위해 우왕좌왕하던 상황과 차창 밖으로 펼쳐진 조선의 민둥산, 그 위에 자리한 묘지들에 대한 독특한 인상이 기록되고 있다.

또한 추자부로 일행이 경성에 도착하여 머물던 會洞은 지금의 중구 회현동과 충무로, 남대문로에 걸쳐 있던 곳이다.[16] 그들이 묵은 곳이 한국인 고위 관리의 저택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의 저택이었는지는 관심이 가는 부분이지만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단지, 공연단의 성격으로 볼 때 경부철도 개통식 행사와 관련이 있는 관료의 집인지, 혹은 저택의 주인으로부터 대접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고 집 구경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 집 주인들은 그곳에 살고 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5월 23일

눈을 뜨니 23일, 한국 달력으로는 光武 9년 4월 19일. 조반 후 본국에 편지를 부치고 이런저런 용무를 마치고 오후에 산책. 일본인거류지를 어슬렁어슬렁 생각 없이 거닐다. 큰 도로로 나와 북쪽으로 올라가니 종로가 나오고 대로 오른편에 종루가 있었다. … 저녁밥을 먹은 후 잠자리에 들었다. 한밤중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小笠原 씨가 문을 열어 주니 大江씨가 안으로 들어왔다. 또 대문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일어나 문을 여니 大西 씨가 뭔가 불만인 기세로 거칠게 장지문을 열고 들어와 큰 소리로 말하길 스승님을 버려두고 大江 혼자 와 버렸다는 것이다. 大江를 일으켜 담판을 하는 소리. 그 소리에 일동 잠을 깸. 애기인 즉 觀世 淸廉를 대장으로 大西, 大江, 茂山千五郎들이 함께 유곽에 갔는데 도중에 大江 혼자 돌아와 大西가 화가 난 것이다.

16) 「會洞」, 『서울지명사전』, 2009. 2. 1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06163&cid=740&categoryId=2295. 2014. 1. 15일 검색.

형 제자, 동생 제자가 편이 갈려 갑론을박. 기생을 품는데도 사제지간과 형제지간의 규정이 있다니 우습기 짝이 없다. 결국 大西 앞에 大江가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는 모양이란. 이 우스꽝스러운 광경에 다들 웃으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5월 24일

조선력 4월 20일. 아침에 어젯밤 일로 웃고 떠들썩한 분위기. 조반을 든 후 각자 내키는 대로 외출. 나는 末光 씨의 안내로 平松, 田中, 谷田, 千五郎, 畑伝次郎 등과 함께 王城[17]으로 향했다. 남쪽의 大安門[18]을 보고 동쪽으로 돌아 小德門[19], 生陽門[20]을 돌아보았다. 영국공사관[21] 뒷문을 지나 다시 큰 도로로 나와 보니 십자로 모퉁이에 전각이 하나가 있었다. 韓國紀念碑殿[22]이라는 건물로 당내에 비석이 있었다. 전각의 천정과 기둥이 극채색으로 대단히 아름다웠다. 큰 도로를 동쪽으로 올라가니 옛 성 광화문이 나왔다. 좌우로 문들이 보였는데 한국정부의 각 관저였다. 거기서 동쪽으로 健春門을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니 오른쪽에 한 殿閣이 있는데 仁修宮[23]이라. 그 모양새를 보니 서양풍의 일본식 전각이다. 안쪽에 있는 2, 3개의 殿舍에는 서양풍의 커튼이 쳐져 있고 서양식 의자 2, 3개를 배치해 놓았다. 나중에 들으니 이 곳은 원래 후시미노미야(伏見宮)[24] 전하를 위래 마련된 곳이라

17) 덕수궁.

18) 대한문. 덕수궁의 동문.

19) 지금의 서소문.

20) 덕수궁의 북문.

21) 지금의 정동 4번지 위치. 1883년 미국공사관이 정동에 자리잡게 되면서 영국(1884년),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열강의 공사관이 속속 정동에 위치하게 된다.

22) 지금의 세종로 교보빌딩 앞에 있는 비각으로 추정된다. 이 비각은 1902년 고종 즉위 40주년과 나이 51세에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간 일을 기념하여 세운 것으로 현재 정식 명칭은 '고종즉위40년칭경기념비'이다.

23) 仁壽宮. 종로구 소격동의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자리. 조선시대에는 소격서와 종친부가 있었는데 대한제국시기 종친부의 앞부분을 헐어내고 일본식으로 인수궁을 지어 후궁들의 거처로 삼았다. 민현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구기무사 공모전 원안」, http://mpart361.blog.me/10170451880 참조. 2014. 1. 22일 검색.

> 고 한다. 궁궐 구경 후 한성의 士族 저택가로 보이는 거리를 보행. 도로는 좁고 가옥 구조는 土藏[25]과 비슷하여 몸체가 낮은 구조로 되어 있다. 큰 도로로 나오니 다시금 蠟塔이 보였다. 末光씨가 문을 두드리며 한국어로 무슨 말인가 하자 안에서 응답하며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다. 2町 사면 정도의 땅에 벽이 둘러져 있고 중앙에 그 유명한 蠟石塔이 서 있었다.[26] … 마당의 사방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황폐하여 애처로웠다. 아까 들어온 문을 다시 나와 북문을 향해 몇 백 미터를 걸었다. 이미 시각도 11시가 넘어 귀로에 올랐다. 도중에 악대(옛날에는 피리를 불고 북을 울렸다고 한다)와 백마에 올라탄 대관 일행을 지나쳤다. 일본의 장례식을 연상시키는 풍경. 웃음을 참으며 숙소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 후 歸路 부산에서 있을 노가쿠 공연 프로그램을 정하기 위해 모였다 … 서로 술기운에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았는데 결국 간제에서 片山를 제지하고 매듭을 지었다.

경성에 도착한 추자부로는 23일과 24일 이틀을 경성 구경에 할애한다. 첫날은 주로 종로 일대, 둘째 날은 명성황후 시해 이후 고종이 줄곧 황궁으로 이용했던 경운궁, 즉 덕수궁→대한문→영국대사관→세종로→광화문→인수궁→파고다공원을 돌아보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현재 파고다공원에 있는 원각사지십층석탑과 원각사비가 인상 깊었던 듯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1885년 조선정부는 공식적으로 오늘날의 명동성당과 백병원 사이길인 남쪽 충무로 2가와 퇴계로 일대를 경성의 일본인 거류지로 지정했다. 경성 일본 거류민은 1885년 말 89명에 불과하던 것이 청일전쟁이 끝난 1895년 말에 1천 939명, 러일전쟁시기인 1904년에는 5천 323명으로 급증해 있었다. 진고개와 남대문 주변에 국한됐던 일본인 거류지는 러일전쟁 발발 이후 회현동, 명동 등 동쪽

---

24) 伏見宮博恭王(1875-1946). 일본 황족으로 러일전쟁에도 참전하였다.

25) 일본 건물의 창고 건물.

26) 이하 현재 탑골공원 안에 있는 원각사십층석탑과 원각사비를 관람한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다.

방향과 을지로 이남으로 더욱 확대되었다.[27]

한편, 일행 중 일부는 조선의 유곽과 기생 문화를 즐기기도 했는데, 위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정 내내 가장 적극적으로 기방 출입을 한 이는 다름 아닌 간제 기요카도였다. 사실 기요카도는 노가쿠계에서도 소문난 풍류남이었다. 1896년 노가쿠계 최고의 실력자 우메와카 로쿠로(梅若六郎), 간제 테쓰노조(觀世鐵之丞)와 함께 출연한 무대에 한 여인이 뛰어올라와 그의 멱살을 잡고 난동을 피운 바람에 한동안 무대에 서지 못하기도 했다. 또 謀 노가쿠시의 애첩과 어울려 당사자 간에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간제 이에모토라는 가문의 후광과 타고난 美聲으로 재기충만한 연기자였으나 그에 못지않게 스캔들도 많은 인물이었다. 5월 23일 기요카도와 함께 어울린 가타야마(片山九郎三郎)는 그의 둘째 동생이고, 오니시(大西亮太郎)는 오사카 간제류의 유서 깊은 노 가문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大西間雪)가 간제 종가에 매우 충실한 인물이었다. 그밖에 고세지로(幸清次郎)는 명문가의 기량 있는 鼓手(小鼓方)였으나 강직한 성격과 하야시카타(囃子方) 처우에 대한 불만 등으로 한때 무대를 떠나 인력거꾼으로 살기도 했으며 1896년 사건 때는 기요카도의 편을 들어 배척을 당하기도 했다.[28] 이를 보면 1905년 조선공연단 멤버는 이래저래 간제 기요카도와 인연이 깊은 인물들이 많았다. 어찌되었든, 역사적인 해외 첫 공연을 앞두고 '노가쿠시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복장 및 언동에 신중하며, 두 사람 이상이 어울려 음주하는 일을 삼가한다'[29]는 규정

---

27) 『京城發達史』, 京城居留民團役所, 1912. ; 오미일, 「京城의 긴자, 식민지의 모던 풍경과 幻影」, [근현대 한국을 만든 40곳]<2> 파란만장한 조선의 심장부-명동 · 충무로, 『교수신문』, 2012년 5월자 등 참조.

28) 이상 노가쿠시의 이력에 대해서는 池內信嘉, 「明治の能役者」, 『能樂盛衰記』, 앞의 책, pp. 282-349 참조.

29) 『文苑』3-7, 第一書房, 1905년(1988년 복각판), pp. 713-714에는 조선공연을 앞두고 단원들의 행동지침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배포한 내용이 실려 있다.

은 별 효험을 보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이 오랜 여행의 목적이자 500년 노가쿠사의 첫 해외 공연을 코앞에 두고도 일행의 동정은 태평하기 그지없었다. 공연 전 모여서 연습을 하거나 무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는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23일 저녁에는 간제 기요카도를 필두로 오니시(大西), 오에(大江), 시게야마 센고로(茂山千五郎) 등이 유곽에서 유흥을 즐기고 돌아와 한바탕 소란을 피우는 모습과 공연 바로 전날인 24일 밤에도 함께 모여 술자리를 벌이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다. 이날 밤 술자리에서 일행이 열을 올려가며 의논한 것은 부산 공연에 올릴 교겐의 레퍼토리를 정하는 문제, 그리고 노《쓰치쿠모(土蜘蛛)》에 아이교겐(間狂言)을 넣느냐 하는 문제였다. 정작 이 여행의 목적이자 당사자들에게도 해외 첫 무대가 될 25일의 공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렇다면 5월 25일 대망의 공연 당일 모습은 어땠을까?

3. 1905년 노가쿠 공연의 정황

1) 경부철도개통식 노가쿠 공연의 실태

러일전쟁의 戰火가 불을 뿜던 1905년이라는 시점에서 남조선을 가로지르는 경부철도의 완공은 일본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사였다. 경부철도 사업은 일본이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아가 장차 조선 식민지 경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다. 노형석에 따르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01년에 설립된 경부철도주식회사의 사장은 '경부선은 조선에서 일본의 유일한 맥관이자 사활의 기관'이라고 선동하였으며 이에 부응해 일본 30개 府縣에서 각계각층이 망라된 국민주 모금운동이 일었다[30]

고 한다.

이렇게 일본 국내에서도 커다란 관심사였던 경부철도 개통식은 대내외적으로 일본의 국력을, 특히 조선에서의 힘의 우위를 과시하기 위한 좋은 선전장이었다. 한일 왕실에서 각각 義陽君 李裁覺과 후시미노미야 히로야스왕(伏見宮博恭王)을 비롯해 한국의 각부 대신 및 대관, 일본의 정부요원과 국회의원, 각국 공사관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1905년 5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개통식은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朝鮮鐵道史』에는 그날의 정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경성 남대문 정류장 구내 광장(후일 古市 철도국장관 관사 부근 구릉지)에서 성대한 개통식이 거행되었다. 식전에는 大浦 체신부대신을 비롯해 長谷川 육군대장, 林 주한공사, 한국 각부 대신 및 그 밖의 大官 귀족원과 중의원의 국회의원, 영, 미, 불 등 각국 공영사 등 내외 귀빈 약 1천여 명이 참석하였다. … (내외빈 축사가 끝난 후) 이어진 축하연에는 노가쿠, 씨름, 가구라(神樂), 마술쇼, 官妓들의 무용 등 각종 여흥이 펼쳐져 흥을 돋우었다.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아름다움의 극치를 선보이니 경성이 생긴 이래 미증유의 성황이었다.
>
> (朝鮮總督府鐵道局,『朝鮮鐵道史』, 1936)[31]

또한,『鐵道時報』는 '회장의 입구에는 동경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대규모 아치를 장식하고 내빈을 접대할 식당은 크고 화려했다. 이날 개통식을 보기 위해 많은 한국인들도 식장을 찾았는데 5만 평에 달하는 광대한 정거장 부지가 사람들로 넘쳐났으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밖으로 나오기는 경성이 생긴 이래 처음일 것'[32]

---

30) 노형석,『한국근대사의 풍경-모던조선을 거닐다』, 생각의 나무, 2006, p. 20.

31) 朝鮮總督府鐵道局,『朝鮮鐵道史』, 1936, p. 337.

32)『鐵道時報』299号「韓國瞥見錄」第八信, 1905. 6. 10. 서정완,「植民地朝鮮における能 - 京釜鐵道開通式典における「國家芸能」能」, 앞의 책, p. 147에서 재인용.

이라고 그날의 상황을 다소 들뜬 목소리로 전하고 있다. 이렇게 국내외의 많은 이목이 집중된 개통식 축하연의 첫머리를 노가쿠가 장식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역사적 무대에 선 교겐시 시게야마 추자부로 요시토요는 이 날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 날 기록의 全文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5월 25일.

한국력 4월 21일. 각자 준비를 마치고 오전 10시 출발. 장소는 남대문 정거장 왼쪽으로 조금 높은 산이 있는데 이를 남산이라 한다. 그 중턱에 式場을 개설하고 그 앞에 노 무대가 멋지게 완성되어 있는 모습. 오후 1시 개통식이 시작되었다. 古市公威 연설 후 2, 3명의 연설. 그 전후로 한국 육군군악대의 연주가 있은 후 노가쿠 무사히 상연을 마쳤다. 상연 후 일행들도 식장 견학을 허가받아 산으로 올라가 보니 일본군대에서 기부한 물건이 있었다. 그밖에 抹茶, 맥주, 스시, 국물, 또 메밀국수, 우동 등을 파는 각종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다. 문을 나서니 정류장 광장에 스모(相撲)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나 구경을 할 수 있어 한국인들이 무리를 지어 구경하고 있었다. 그 조금 남쪽 높은 누각이 있어 다가가 보니 官妓들이 춤을 추고 있었는데 참으로 진기하였다. 무희는 모두 10명으로 머리는 아름답게 땋고 의상은 흰색 혹은 황색에 하의는 자색 혹은 흰색이었다. 그 중에 한 명이 춤을 추고 다른 무희들은 둘러 서 있는 모습. 남자 악사가 한 명. 악기는 장구[33], 호궁, 퉁소 같은 것이었다. 악인은 통상복 이외에 백색의 소매가 커다란 의상을 착용하였고 머리에는 하얀 비단 천을 접어 착용하였다. 숙소로 돌아와 저녁 식사, 아무 일도 없었다.

노가쿠사의 빅뉴스이자 많은 기대와 이목이 집중된 이 공연에 대한 시게야마 추자부로 요시토요의 기록은 너무나 짤막하고 무심하다. 개인적으로도 첫 해외 무대였을 이 날 공연에 대한 소감, 진행 정황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고, 무대가 멋지게

33) 원문에는 'かつほ'라고 되어 있으나 'かつこ(羯鼓)의 誤記로 추정됨.

마련되었다는 것이 전부였다. 다만 공연이 끝나고 본 조선 관기들의 무용과 의상에 같은 예능인의 입장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그려질 뿐이다. 숙소로 돌아와서도 공연에 대한 다른 연기자들의 감상을 옮겨 적지도 않았다. 일본인들이 '그 광대한 규모, 위대한 아치, 회식장의 넓이, 노무대 어느 것 하나 조선인의 눈을 놀라게 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34]'라고 자평하던 경부철도 개통식 공연에 대해, 정작 무대에 선 연기자들의 반응은 이렇듯 의외로 조용했다.[35]

여행기의 필자 2세 추자부로 요시토요는 메이지시대를 대표하는 교겐시로 1903년에 이미 '무대에 선 모습은 마치 소나무의 정정한 기풍을 느끼게 한다'[36]는 평가를 받는 명배우였다. 또한 간제의 이에모토 기요카도는 물론이고 오니시 료타로의 기량, 오오에 마타사부로의 자태 역시 간제류(觀世流)에서 그 형태로는 그 앞에 설 자가 없다고 평가받는 노가쿠시였다. 이런 면면들로 이루어진 공연에 대해 정작 연기자들이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무대를 향한 관객의 반응을 연기자가 제대로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공연의 성공 여부는 다른 무엇도 아닌 관객의 호응에서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25일 축하연에서 선보인 곡은 노《야시마(八島)》(片山)《하고로모(羽衣)》(清廉)《고카지(小鍛冶)》, 교겐에 《도부갓치리(丼かつちり)》(茂山千五郎) ,《다치바이(太刀奪)》(茂山忠三郎)였다. 지루한

---

34) 『鐵道視報』299号, 1905.6.10 기사. 서정완, 「植民地朝鮮における能—京釜鐵道開通式典における「國家芸能」能」, 앞의 책, p. 147에서 재인용.

35) 한편, 다음 날 26일 경성 시내에서 열린 자선공연에 대해서도 '아침에 비가 와 걱정하다 오후 1시 다행히 비가 그쳐 공연이 시작되었다. 쾌청한 날씨 속에 6시에 공연이 무사히 끝나 귀가, 내일 출발 준비로 각자 사 모은 선물 등을 챙기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내용뿐이다.

36) 『能樂』, 1903년, 6월호. 小林責, 「狂言明治百年」, 『狂言史研究』, 앞의 책, p. 127에서 재인용.

축사가 끝나고 드디어 시작된 축하 공연의 첫머리를 장식한 것이 노가쿠였다. 이국적 분위기의 악기 선율, 독특한 가면, 고풍스러운 의상. 상상컨대 눈앞에 펼쳐진 이국적 풍경에 대해 대부분 노가쿠가 처음인 관객은 일순 관심을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예술 작품에 대한 진지한 감상으로 이어지기에는 애초에 무리가 있었다. 무엇보다 그 날의 공연장은 조선을 사이에 두고 열강의 욕망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너무나도 정치적인 공간이었던 것이다.

일본이 러일전쟁의 승리를 위해 서둘러 진행한 경부철도는 무리한 토지 징발과 인력동원으로 조선인민들에게는 많은 상처를 낸 원흉이었다. 1906년 5월 15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의하면 '철도가 통과하는 지역은 온전한 땅이 없고 기력이 남아 있는 사람이 없으며 열 집에 아홉 집은 텅 비었고 천리 길에 닭과 돼지가 멸종하였다'고 적고 있다. 또한 일본의 가혹한 처사에 영등포와 경산, 만촌, 신동 등지에서는 선로에 큰 돌을 놓는 등 열차전복 테러가 잇따랐다[37]고 전한다. 경부철도 개통식이 당시 조선인민에게 대환영을 받을 행사는 아니었으며, 축하연에서 베풀어진 일본 전통예능에 관심이 가기는 더더욱 힘든 상황이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서정완의 지적대로 이 노가쿠 공연은 '노에 심취해 있던 후루이치 고이(古市公威) 경부철도총재의 개인적 취향이 반영된 것이었다. 동시에 당시 국가예술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던 노가쿠를 전면에 앞세워 제국 일본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한'[38] 것이었다. 하지만 정작 공연의 주인공인 배우들의 반응은 그런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여행기에 그려지고 있는 공연단의 행동은 노가쿠의 위대

37) 노형석, 앞의 책, pp. 20-23.

38) 서정완, 「植民地朝鮮における能 - 京釜鐵道開通式典における「國家芸能」能」, 앞의 책, p. 148.

한 문화 예술을 해외에 전파한다는 문화예술단의 면모보다는 조선 유곽의 기생 문화를 즐기는 등 들뜬 관광객의 모습일 뿐이다. 게다가 여행기의 필자 추자부로는 조선의 이국적 풍모에 대해서도 그다지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5월 27일

오전 4시 경 출발. 각자 짐을 들고 남대문 정차장에 도착. 정시 출발. 3일간이지만 경성 벌레에 물리고 밥은 맛이 없고 과자도 맛이없었다. 그저 돌아가고 싶은 마음. 기차는 별일 없이 오후 9시 쯤 초량에 도착했다. 길이 깜깜하여 숙소까지 가는 길이 힘들었다.[39]

일본 노가쿠계가 '현대 교겐계의 제1인자'[40]라며 찬탄해 마지않던 교겐시 추자부로 요시토요의 경성 일정은 첫 해외 공연의 감흥도 없이, 불결한 위생수준과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의 기억과 함께 이렇게 끝이 났다.

2) 부산 공연과 귀로

부관 연락선을 타기 위해 부산에 도착한 일행은 여기서도 또 한 번의 공연을 갖는다. 그런데, 5월 28일 '南浜商法會議所 창고에 무대를 설치하고 객석을 2등석으로 나누어 상연된' 이날 공연에 대해서 시게야마 추자부로는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25일과 26일 경성에서 치러진 화려한 무대에서도

---

39) 여행기 본문에는 미리 예약해 놓았던 大池旅館이 만원이라 淸廉 대장과 片山, 大西 등만 大池旅館에 묵고 나머지는 전에 묵었던 石井旅館에 묵게 된데 대해 일행의 불만이 터져 나온 이야기와 大西의 중재로 결국 다함께 石井旅館에 머물게 되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40) 野々村戒三, 「狂言の展開—明治以後の狂言」, 野上豊一朗 編, 『能樂全書』 總合改訂版, 第5卷, 東京創元社, 1980, p. 110.

나오지 않던 반응인 것을 감안하면 28일 부산 공연에서 관객들의 반응이 꽤나 좋았던 모양이다. 일행 중 한 사람이었던 狂言師 시게야마 센고로(茂山千五郎. 1864-1950) 역시 이날 부산 공연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남겼다. 다음은 귀국 후 그가 한 신문사와 가진 인터뷰 내용이다.

> 28일 부산의 노가쿠 공연은 오전 10시부터 南浜商業會議所의 창고 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가설무대라고는 해도 하시가카리(橋掛り)도 6, 7間이나 됐고, 게다가 가가미이타(鏡板)는 금병풍이 쳐져 있었습니다. 관객은 2천 명 이상이 구경하러 오셨는데 전부 일본인이었습니다. 전부 일본에서 공연하는 것과 같은 체재로 진행돼서 꼭 본국에서 연기하는 느낌이었습니다. (『京都日出新聞』, 1905.6.4)

위 인터뷰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날 관객은 전부 일본인이었다. 25일 경부철도개통식 공연의 관객들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모인 관중이었다면, 28일의 부산 공연은 적어도 타국에서 고국의 전통예술을 보고자 자발적으로 몰려든 관객이었던 셈이다. 센고로는 이날 공연에서 조선 무대에 대한 가능성을 보았는지 5년 후인 1910년 다시 조선 무대에 서게 된다.

공연이 열린 미나미하마(南浜)는 지금의 남포동 일대로 南浜商法會議所는 '부산항일본인상법회의소'를 말하는 것 같다. 이 상법회의소는 1879년 8월에 일본인 전관거류지 안에 조직되었는데 당시만 해도 일본에서 상법회의소가 조직돼 있었던 곳은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 두 곳뿐이었다고 한다. 부산항 상법회의소는 부산에 있는 무역상・은행업・해운업・도매업에 종사하는 일본인들로 조직되었다가 1890년에는 모든 일본인 상인들과 잡화상인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켰다고 한다.[41] 부산 공연 무대가 상법회의소 창고

41) 부산상공회의소 편, 「일본인상업회의소」, 『부산상공회의소100년사』, 부산

에 차려진 것으로 보아 이들을 초청한 부산의 유지들이 바로 이 상법회의소의 회원들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시기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대개가 상인계층이었고 이들은 모두 이 상법회의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날 2,000명에 달했다는 관객 역시 이들 일본인 회원들이었을 것이다. 1905년 부산 거주 일본인 인구는 2,363戶數에 13,364명이었다.[42] 센고로의 발언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거의 한 집에 한 사람이, 전체 부산 거주 일본인의 15%가 이날 공연을 관람한 것이다.

28일 부산에서의 공연을 성공리에 마친 일행은 귀로에 오를 날을 손꼽는다. 하지만 러시아 발틱함대와 도고 헤하치로(東鄕平八郎)가 이끄는 일본 연합함대가 27일 대한해협에서 격렬한 海戰을 전개하자 귀국 일정을 알 수 없게 된 일행의 불안감이 커져간다. 여행기에는 29일 느닷없이 귀항 선박을 타게 된 일행의 모습과 대한해협을 건너다 생긴 에피소드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다.

5월 29일

조반 후 갑자기 소란스러워짐. 배가 출항한다는 것이다. 오후 1시에 승선하여 4시 출항. 일행 정신없이 짐을 챙기는 모습. 낚시 하러 나간 片山씨를 부르러 배를 보내는 등 한바탕 소동 끝에 1시경 승선. 남쪽에서 군함이 한 대 나타나더니 기적 소리를 내며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漢城丸 선장이 이에 답하여 배를 멈추었다. … 문답하는 소리를 듣고 일본 군함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일동이 크게 안심, 그 중에 多田 선생은 너무 기쁜 나머지 "일본이다, 일본이다" 라며 춤을 추었다. 배가 급진하여 예정보다 2시간 일찍 도착했다.

5월 29일 시모노세키로 향하던 일행은 동해상에서 러시아 함대

상공회의소, 1989, pp. 99-100.

42) 부산 거주 일본인 수는 김의환, 『부산근대도시형성사연구』, 연문, 1973, p. 36 참조.

를 목격하고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나오는 등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우여곡절 끝에 대한해협을 건넌 일행은 30일 시모노세키에 도착한다. 能樂史 최초의 해외 공연은 시모노세키 春汎樓에서 觀世家가 베푼 축하연을 끝으로 '노가쿠 만세, 간제류 만세를 和唱'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공연의 성과야 어찌되었든 그들로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국가의 부름을 수행한 전통예능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해외 첫 공연에 대한 감회가 있었을 것이다.

주인공 추자부로는 중간에 히로시마 이츠쿠시마(嚴嶋)에 들러 일대를 둘러보고 6월 1일 귀가하는 것으로 14박 15일의 여행기는 끝이 난다.

4. 1905년 조선 노가쿠 공연의 의미

1) 1905년 조선 노가쿠 공연의 의미

이상, 1905년 조선에서 열린 노가쿠 공연의 실상을 시게야마 추자부로 요시토요의 기록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경부철도 개통식전의 축하 공연을 위해 마련된 이 공연은 노가쿠사 첫 해외 공연이라는 점 외에도 경부철도 개통이라는 동아시아급 빅 뉴스를 배경으로 한 만큼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된 무대였다. 이런 역사적인 무대에 노가쿠가 서게 된 데에 대해 공연단의 대표 觀世 기요카도는 '500년 유구한 역사를 면면히 이어온 노가쿠의 전통을 조선에 전하고 韓人들의 이목을 경도케 할'[43]것이라는 포부를 밝히며 조선에 입국했다. 하지만 요시토요의 기록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43) 『大阪時事新報』 1905. 5. 倉田善弘, 『明治の能樂』 3, 1997, p. 372에서 재인용.

1905년의 노가쿠 공연은 당지의 조선 인민들과 문화계로부터 어떠한 반응도 이끌어 내지 못했으며, 연기자 당사자들 역시 아무런 역사적 감흥도 연기자로서의 자부심도 느낄 수 없었던 무대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 점에서 1905년의 조선 노가쿠 공연은 정치적 선전에 동원된 이벤트였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이벤트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통의 노가쿠가 일대 융성의 기회를 포착하게 된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는 다름 아닌 노일전쟁의 승리였다. 이에 대해 이케노우치 노부요시(池內信嘉)는 『能樂盛衰記』를 통해 '國粹 보존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 속에서도 … 일거에 일서서지 못하고 진퇴를 거듭한 노가쿠가 노일전쟁 승리를 계기로 일본 제국의 지위가 열강의 대열에 들기 시작하며 크게 융성의 기회를 포착했으며…[44]'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본 국내에서 노가쿠 부흥이 러일전쟁의 승리와 어떻게 연동되었는지를 실증하는 문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노일전쟁의 승리로 인해 노가쿠가 해외진출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즉, 일본은 노일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조선과 대만, 동남아시아로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거침없이 도모하게 되는데, 그와 함께 노가쿠도 아시아 식민지라는 새로운 무대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침탈의 최전선에 노가쿠가 함께 하는 양상을 띠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05년 10월 대만에서 러일전쟁의 승리를 자축하는 기념행사가 거행되는데 이 행사장에 현지 일본인들의 위문공연 성격을 띤 노가쿠 공연이 개최되었다. 이때의 공연은 11월 1일 桂社 淡水館에서 대만 民政長官 및 군사령관 이하 문무제관을 비롯하여 在 대만사회 주요 일본인 약 800여 명을 초빙한 가운데 치러졌으

44) 池內信嘉, 『能樂盛衰記』, 東京創元社, 1926, p. 2.

며, 동월 3일에 열린 총독부 天長節 축하공연 역시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렇게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최전선에 전통예능 노가쿠가 함께 한 데에는 노가쿠가 중세와 근세시대를 통해 무사계층과 가장 가까운 예능이었다는 역사적 배경을 꼽을 수 있다. 제국주의 군부와 노가쿠가 밀착되어 식민지로 함께 진출한 근대 能樂史의 현상은 노카쿠가 걸어온 역사와 성장 환경을 생각할 때 일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한편, 1905년 대만 공연을 펼친 인물에 교겐시 시게야마 추자부로와 하타케 덴지로(畑伝次郎)가 있었다.[45] 이때의 공연에 그들이 발탁된 것은 무엇보다 5개월 전에 있은 조선 원정 공연 경험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조선 공연 당시 별다른 감흥을 피력하지 않은 시게야마 추자부로였지만 그에게도 역시 이런 해외 공연은 무시할 수 없는 기회였던 것이다. 메이지 노가쿠계의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 새로운 무대와 관객에 목말라 있던 노가쿠시들은 아시아 식민지라는 새로운 시장의 존재를 발견했다. 그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은 다름 아닌 1905년의 조선 공연이었다.

2) 1905년 이후

시게야마 추자부로 일행이 전쟁의 포성이 들리는 대한해협을 뚫고 귀국하던 때는 이미 전쟁의 승기가 일본으로 기운 때였다. 주지하다시피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은 그해 8월 포츠머스 강화회의에서 한국 지배권을 획득하고 남만주 진출을 확정지었다. 또한 1905년 11월 17일 경운궁에서 을사늑약이 체결됨으로써 대한제국은 독립국의 지위를 잃고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

45) 이때의 공연단 대표는 기타류(喜多流)의 이에모토(家元) 롯페타(六平太)였다. 1905년 대만 공연에 대해서는 池內信嘉, 『能樂盛衰記』, 앞의 책, pp. 370-371 참조.

이후 일본인의 본격적인 유입과 함께 노가쿠의 조선 진출도 본격화되었다. 아직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기 전인 1908년에 벌써 경성에서는 재조선 일본인들 사이에서 노가쿠 유행 무드가 감지된다.

> 지금 노가쿠 요쿄쿠의 유행은 도시와 지방 할 것 없이 성황이 극에 달했다. 母國 애호가들의 폭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찌는 듯한 더위의 대만에서부터 한풍 몰아치는 사할린, 혹은 만주, 혹은 韓國, 동포 민족이 발전하는 곳마다 이 깊고 그윽한 취향의 요쿄쿠가 유행하는 것을 보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며 이 고상한 요쿄쿠, 우미한 오락이 살풍경한 신식민지에서 취미의 일종이 되어 그 음란하고 비속한(鄭聲卑猥) 화류가(狹斜)의 淫樂을 물리칠 조짐을 보이는 것은 사회적 풍교를 위해서도 특히나 환영할 만한 것이다.[46]

잡지『조선』에 실린 위 글은 아시아 지역에서 일기 시작한 노가쿠 유행 현상을 묘사하고 있는데, 뒤이어 경성에 유행하는 요쿄쿠 동호인 모임의 실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 觀世流의 松風會, 宝生流의 五雲會, 喜多流의 松濤會는 소위 각개 유파의 總本陣이라고 칭할만한 회합이며 매월 1회 반드시 素謠 例會를 개최하여 서로 연마해 온 기량을 격려해 주고 정신의 오락을 窮究해 오고 있다. 觀世流에서는 후루이치(古市) 철도관리국장관, 가토(加藤) 고문, 松本법관부장이 能에 조예가 깊어 공무의 여가를 이용해 끊임없이 이를 장려한 끝에 松風會회가 발족되어 현재 회원 수 40여 명에 이른다. 寶生流에는 도조(東條) 여단장 미야오카(宮岡) 해군소장[47] 같은 선구자들이 있어 모임이 날로 번성하여 현재 나베시마(鍋

---

46) 遠樂太郎, 「京城に於ける謠曲界」,『朝鮮』1-6, 일한서방, 1908. 8, p. 49.

47) 통감부 문서 「韓國施政改善ニ關スル協議會 第十回 會議錄」(1906년 8월 15일 실시)의 발언자로 宮岡 海軍少將의 이름이 보이는 것으로 한국 주둔 해군 장교로 宝生流 노가쿠 동호회에 결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측된다. 통감부 자료는 이 회의는 진해만에 신설될 일본 군항 예정지에 대한 토지 보상에 관한 회의였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통감부문서 1-6 참조.

> 島) 侯爵, 이와자키(岩崎) 해군소장、고사카(香阪) 법무원장을 위시하여 五雲會의 회원이 50여 명에 이르고 노련한 武田八朗右衛門 씨가 열심히 후진을 기르고 있어 장래가 기대되는 바이다. 또한 喜多流에는 구마모토(熊本) 출신의 모토무라(本村) 옹이 松濤會의 주창자로 밤낮으로 교육에 힘써 문하생 60여 명에, 1, 2명의 韓國人도 역시 소문을 듣고 입문한 것을 보면 경성 요쿄쿠계의 盛況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48]

먼저 위 글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喜多流의 노가쿠 동호회 모임에 한국인 1, 2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 부분이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파악되지는 않았으나 짐작컨대, 선행 연구에서도 그 존재가 밝혀진 金東完[49] 정도가 아닐까 한다.

또한 위 글을 보면 觀世流의 松風會, 宝生流의 五雲會, 喜多流의 松濤會 등이 초기 경성의 謠曲界를 리드해 간 단체들이라는 것과 각 단체의 주요 멤버와 그 규모를 알 수 있다. 특히 호쇼류 五雲會의 주요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는 도조 여단장은 바로 도조 히데키의 實父인 도조 히데노리(東條英教. 1855-1913)[50]다. 이렇게 군부와 법조계의 주요 인사가 경성 요쿄쿠계에 포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최상류층의 노가쿠 애호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노가쿠=고급예술이라는 이미지를 창출해 내기에 충분하고 이는 곧바로 재조선 일본인들 사이에 노가쿠 붐을 형성하는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했을 것이다. 1908년 40여 명이었던 간제류의 회원은 10년

---

48) 遠樂太郎, 「京城に於ける謠曲界」,『朝鮮』1-6, 1908. 8, 앞의 책, pp. 49-50.

49) 김동완에 대해서는 이지선・山本華子, 「1910년대 조선에서의 일본전통 음악 사정 2-1917년 후반기 - 1919년의 『경성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국악교육학회, 『국악교육』 36, 2013. 11, p. 110 ; 서정완, 「近代能樂史と植民地能樂史」, 앞의 발표문, p. 3 참조.

50) 히데노리는 1904년 러일전쟁에서 보병 제3여단장으로 출병하였으나 항명 등의 이유로 해임 귀국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후 1907년 11월 中將으로 명예 진급 후 퇴임했다.

만인 1918년에는 400명으로 늘어났고, 세 유파의 문하생 수는 도합 7,800명에서 1,000명으로 확산되었다.[51]

조선에 형성된 요쿄쿠계의 이러한 확장세는 이후 근대 한국 문화계에 있어 노가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일 수도 있다. 일제강점기 팽창해 가는 노가쿠 문화는 향후 한국 사회와 어떠한 접점을 가지는가, 그리고 근대 한국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무척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한 연구가 요망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5. 맺음말

본고는 근대 노가쿠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해외 식민지 공연사 중에서도 특히 1905년 경부철도개통기념 공연과 관련하여 이제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시게야마 추자부로 요시토요의 여행기를 소개하고, 여기에 나타난 1905년 조선의 모습과 노가쿠 첫 조선 공연의 성격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1905년 경부철도 개통식에서 피로된 노가쿠는 한일 정재계의 주요 인사들과 천여 명의 관객 앞에서 치러진 최초의 해외 노가쿠 공연이었다. 이 역사적인 무대에 노가쿠가 호출된 배경에는 500년 전통의 고유한 이 연극을 서구의 오페라만큼 대접받는 문화예술로 키워보겠다는 제국일본의 포부가 작용했다. 또한 여타의 전통예능을 제치고 노가쿠가 '국민예술의 精髓'로 부상하게 된 데에는 노가쿠와 일본 지배계층의 친밀감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무엇보다 노는 중·근세를 통해 일본 지배 무사 계층 최고의 오락예술이었

51) 1918년 노가쿠 동정에 대해서는 「京城謠曲界の昨今」『경성일보』, 1918. 1. 5. 3면 기사 내용. 이에 대해서는 이지선·山本華子, 앞의 논문 p. 108에도 소개된 바 있다.

고, 메이지유신 이후 찾아온 근대시기에서도 옛 지배계층은 여전히 이름만 달리한 채 근대 일본의 최상층으로 군림했다. 일본의 아시아 침탈과 함께 조선, 만주, 중국 등 식민지 각국에 가장 먼저 노가쿠가 들어가게 된 데에는 바로 이러한 권력과 노가쿠의 관계가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시게야마 추자부로 요시토요의 공연 여행기를 통해 본 바로는 그 역사적 의미의 중차대함과 기요카도의 비장했던 출국의 변을 무색케 할 만큼 배우들에게나 관객들에게 별 감흥을 주지 못한 무대였던 것 같다. 즉, 이때의 노가쿠 무대는 경부철도 개통이라는 정치적, 제국주의적 사건에 갑작스럽게 동원된 하나의 이벤트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1905년의 이 공연을 계기로 새로운 무대와 관객에 목말라 있던 노가쿠시들은 아시아 식민지라는 새로운 시장의 존재를 발견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1905년 이들의 조선 공연은 일본 노가쿠사의 커다란 사건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한일 합방 이후 일본인의 본격적인 유입과 함께 일본 전통예능 노가쿠의 조선 공연도 본격화되었는데, 이때 전개된 조선내 노가쿠 문화와 공연 양상은 1905년의 그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1905년 이후 노가쿠 조선 진출 및 특히 교겐의 조선 공연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귀한 자료를 흔쾌히 내어주신 大藏流의 茂山忠三郎家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본고에서 이용한 시게야마 추자부로 요시토요 여행기의 翻刻은 전적으로 大阪大學大學院 國文學研究科의 나카오 가오루(中尾薫) 교수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혀 두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부산상공회의소 편,「일본인상업회의소」, 부산상공회의소,『부산상공회의소100년사』, 1989.
『大阪時事新報』 1905. 5. 2.
『京都日出新聞』 1905. 6. 4.
京城居留民團役所 편,『京城發達史』, 京城居留民團役所, 1912.
朝鮮總督府鐵道局 편,『朝鮮鐵道史』, 朝鮮總督府鐵道局, 1936.
『文苑』3-7, 第一書房, 1905년(1988년 복각판).
『鐵道時報』 299, 1905. 6. 10.

2. 논문

徐禎完,「近代能樂史と植民地能樂史」, 立命館大學コリア研究センター研究會(2014. 1.15) 發表文, pp. 1-10.
오현열,「韓國当地能樂享受の諸相、稿 - 在韓國謠曲家名盤 -」,『法政大學大學院紀要』 43, 1999, pp. 304-283.
오미일,「京城의 긴자, 식민지의 모던 풍경과 幻影」,『교수신문』, 2012. 5.
이지선・山本華子,「1910년대 조선에서의 일본전통 음악 사정 2 - 1917년 후반기-1919년의『경성일보』기사를 중심으로」, 한국국악교육학회,『국악교육』 36, 2013. 11, pp. 105-127.
飯塚惠里人,「明治末年の韓國における能樂公演：明治四三年「國諷」能樂公演を中心に」,『翰林日本學』 13, 2008, pp. 5-21.
西野春雄氏,「新作能の百年(1) - 1904年～2004年 -」,『能樂研究』 29, 2005. 5. 31, pp. 112-142.

3. 단행본

김의환,『부산근대도시형성사연구』, 연문, 1973.
노형석,『한국근대사의 풍경-모던조선을 거닐다』, 생각의 나무, 2006.
徐禎完, 「植民地朝鮮における能—京釜鐵道開通式典における'國家芸能'能」,『植民地朝鮮と帝國日本—民族、都市、文化』, 勉誠出版, 1910.
池內信嘉,『能樂盛衰記』, 東京創元社, 1926.
小林責,『狂言史研究』, わんや書店, 1974.
野々村戒三,「狂言の展開—明治以後の狂言」, 野上豊一朗 編,『能樂全書』總合改訂版, 第5卷, 東京創元社, 1980.
김경남,「한말 일제하 부산지역의 도시형성과 공업구조의 특징」, http://cafe.naver.com/dgcs/1638
『서울지명사전』, 2009. 2. 1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06163&cid=740&categoryId=2295
민현준,「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구기무사 공모전 원안」, http://mpart361.blog.me/10170451880.

The Records of the Performance of Shigeyama Chuzaburo Yoshitoyo's Nohgaku in Choseon

Kim, Nan-Ju

This paper is to introduce travelogue of Shigeyama Chuzaburo Yoshitoyo that was not disclosed till not especially concerning on the performance to celebrate Opening the Seoul-Busan Railway in 1905 out of the oversea colony performance history decorated one pace of the modern Nohgaku history and consider appearance of Choseon in the records and a nature of the first performance of Nohgaku in Choseon.

The travelogue recorded the itinerary for 15 days and 14 nights from May 18 to June 1, 1905 on 29 pages. Most of it was provided for recording exotic scenery and customs on the Choseon territory stepped on first and episodes during the travel. Especially the contents written after visiting around Yongdusan and Jagalchi Market and Choryang Station in Busan and around Jonggak and Jongro, Deoksugung, Daehanmun, England Embassy, Sejongro, Gwanghwamun, Insugung and Pagoda Park vividly described appearance of Busan and Seoul as of 1905, which are worthy to refer to restoration of our modern history.

Nohgaku that was demonstrated on the opening ceremony of the Seoul-Busan Railway in 1905 was the first oversea performance of Nohgaku presented before key personnel of political and financial worlds of Korea and Japan and several thousands of audiences. In addition, Kyogenshi Shigeyama Sengoro, Iemoto of Kanze Family, Kiyokado, Onishi Ryotaro, Oe Matasaburo, etc. including the author, Chuzaburo Yoshitoyo were great actors representing the time. However, it is hardly to find out any record on the actual performance from the travelogue of Yoshitoyo. It is understood that he could not feel any interest in the performance as an actor at that time. In other words, Nohgaku stage of the time was one event that had been suddenly mobilized to a political and imperialistic event called opening of the Seoul-Busan Railway and could not

contain a meaning of cultural propagation or exchange between countries.

However, taking this performance in 1905, a traditional Japanese entertainment, Nohgaku had found a new market called Asian Colonies and afterwards it had regularly entered into the oversea colonies together with regular pillage of Asia by Japan. From this point of view, their performance in Choseon in 1905 could be positioned as a notable event of the Japanese Nohgaku history.

Key Words : Nohgaku, Kyogen, Shigeyama Chuzaburo Yoshitoyo, Modern History of Nohgaku, Oversea Performance of Nohgaku, Opening Ceremony of the Seoul-Busan Railway, Seoul in the Modern Age, Busan in the Modern Age

김난주
소속: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원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87, 431-204
전화번호: 010-5737-8786
전자우편: nanju21@hanmail.net

이 논문은 2014년 3월 14일 투고하여
2014년 4월 2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4월 16일 게재 확정함